

##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안 신 호<sup>†</sup>                      박 미 영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여러 영역의 능력 평정치의 합으로 자존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이 각 영역에 부여하는 중요도(개인 중요성)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James(1890)에서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개인중요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들(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중요성의 고려는 자존감 예측력을 낮추며, 집단중요성(개인중요성의 집단 평균) 역시 자존감 예측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는 먼저 참가자들 스스로의 장·단점을 쓰게 하고, 그 영역들에 대한 능력, 중요성, 자기수용(기분, 행/불행에 기여하는 정도, 자부심/열등감)을 조사하여 '자기중요성 가설'과 '단점의 자기 수용가설'(단점에 대한 자기 수용이 잘 된 사람의 자존심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참가자 각자의 응답 영역이 달라 집단중요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와 3에서는 연구 1의 자료에 근거하여 영역을 설정하고, 제시된 영역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세 연구를 통하여 (1) 개인중요성이 자존감 예측에 적어도 방해요소는 아님, (2) 장·단점을 모두 망라한 전 영역에 대한 자기수용 지표가 자존감 예측에 매우 탁월함, (3) 아주 중요하지만 매우 열등한 영역에서 자기 수용을 잘 하는 사람이 그러한 영역에서 자기 수용을 못하는 사람보다 자존감이 높음(단점 자기수용 가설의 지지 증거)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 설명을 탐색해 보고, 그 과제를 해결할 후속연구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 자기수용, 영역별 능력과 중요성

---

<sup>†</sup> 교신저자 : 안 신 호,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E-mail : shahn@pusan.ac.kr.

자존감(self-esteem)은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3년 전에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Watson, Suls, & Haig, 2002), 1967년부터 논문집필 당시(2000년)까지 발표된 자존감 관련 연구의 수는, PsycINFO 데이터베이스에서, 2만 건 이상이었으며, 그 연구의 추세는 최근에 더 왕성하여 1990년 이후의 연구가 11,000건 이상이었던 한다. 자존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이므로(Baumeister, 1991; Maslow, 1954), 성격 및 사회심리학은 물론, 건강, 임상, 상담, 조직, 교육 등 대부분의 심리학 영역에서 자존감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연구의 대부분은 자존감 욕구의 영향, 자존감 향상 혹은 유지를 위한 기제에 따른 심리현상들에 관한 것이다. 자존감의 형성에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혹은 낮아지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지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보고 그 가설들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존감은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에서의 자신감이 아닌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esteem), 즉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Greenwald & Pratkanis, 1984; Rosenberg, 1965, 1979; Watson, et al., 2002; Wylie, 1974). 이에 대조적으로,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심리학자들은 “self-view”라 칭한다(Bernichon, Cook, & Brown, 2003; Ehrlinger & Dunning, 2003; 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 Stapel & Suls, 2004). (이 논문에서는 “영역별 능력”이라 부르기로 한다.) 전반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Baumeister, Tice, & Hutton, 1989; Bernichon, et al., 2003; Rosenberg,

1979). “영역별 능력”은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이 자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정점으로 측정된다. 자존감의 생성 혹은 형성에 관련된 가설을 생각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영역별 능력”이 전반적 자존감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후의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전반적 자존감’을 말한다.)

### 영역별 능력 가설

한 개인의 자존감 형성은 어떤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의 우수함(혹은 열등함)을 자각하는 체험들의 축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가설은 각 ‘영역별 능력’(self-view)의 총합이 자존감을 결정하는 요인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러 영역을 제시하고, 그 영역에서 자신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 점수의 합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실제로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sup>1)</sup>(Butler & Haigh, 1954; Fitts, 1964; Gough & Heilbrun, 1965; Piers, 1969). 그러한 상관은 자존감의 변량의 반 정도(연구에 따라서 20% ~ 60%)를 설명했고, 자존감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 Rosenberg, 1979; Wylie, 1974).

### 자기개념 일치 가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기개념(self-concept)간의 괴리와 자존감간의 관계이다. 이 계열의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자

1) 각 영역별 능력 점수와의 상관만이 아니라 영역별 능력 점수의 총합(평균)과의 상관임. 이하 “영역별 능력”은 영역별 능력 점수들의 총합(평균)을 의미함.

기개념과 실제의 자기개념간의 일치정도와 자존감과의 관계에 초점이 모아졌다(Butler & Haigh, 1954; Higgins, 1987; Katz & Zigler, 1967; Markus & Nurius, 1986). 이상적 자기(ideal-self)란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나 되고 싶은 자기를 말하고, 현실적 자기(actual-self)란 현재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자기를 말한다. 이 두 개념간의 불일치가 작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불일치가 클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자기개념간의 일치정도와 자존감과의 상관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과의 상관보다 높지 않았다(Altrocchi, Parsons, & Dickoff, 1960; Guernsey & Burton, 1967; Kubinić, 1970).

### 중요성 가설

세 번째 접근은 William James(1890/인쇄중)의 주장과 관련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현재 심리학자가 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심리학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희랍어를 아주 몰라 허위적거린다고 해도 만족한다. 희랍어를 모

른다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 모욕을 전혀 주지 않는다. 내가 언어학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정반대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둘째가는 권투 선수이고 둘째가는 조티수란 이유만으로,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 된다는 인간적 역설(逆說)이 생긴다. 한 사람을 빼놓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때려눕힐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겐 무의미하며, 그는 이 한 사람을 때려눕히기 위해 ‘겨루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어떤 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눈에는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사실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1890, p. 310 / 인쇄중<sup>3)</sup>).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James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자기 평가는 자신이 **중요시하는** 삶의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자기 평가의 결과이다. 어떤 요소는 핵심적이고, 다른 요소는 부수적인데, 핵심적인 요소가 주로 자존감 형성을 결정한다. 즉, 자기 평가에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이나 능력이 자존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요성 가설은 James이외의 다른 심리학자들, 자존감을 깊이 있게 다룬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Coopersmith, 1967; Hoge & McCarthy, 1984; Kaplan, 1980; Rosenberg, 1965, 1979, 1982; Wells & Marwell, 1976)에서도 제안되었다. Wylie(1974)는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역별 능력을 단지 합한 수치를 자존감의 지표로서 삼는 것은

2) 바로 뒤에서 다룬 중요성가설과 마찬가지로 이 가설도 William James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상정하고 있는 가능성(potentiality)에 대한 실현(actuality)의 비율에 의하여, 즉, 자존[감] = 성공/포부 (Self-esteem = Success / Pretensions)라는 공식으로 결정된다(1890, p. 310).

엄밀하게 말하자면, James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차이가 아닌, 둘 간의 비율을 제안한 셈이다.

3) 인쇄중인 정양은의 번역본 “심리학의 원리”(서울: 아카넷)에서 인용함. William James의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원문은 <http://www.emory.edu/EDUCATION/mfp/james.html>에서도 볼 수 있음.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p. 48)고 주장했다.

중요시되는 영역은 개인의 자존심 보호를 위하여 변화되기도 한다(Wells & Marwell, 1976). Rosenberg(1979)의 선택성 가설(selectivity hypothesis)에 따르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우수한 영역을 중요하게, 열등한 영역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또한 Tesser(1988)의 자기평가 유지 모형(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도 같은 입장이며, 자존감의 위협을 느낄 때 열등하다는 피드백을 받은 영역에 대한 개인적 중요성(Tesser의 용어로는 자기 정의에의 ‘적절성’)을 낮추는 현상은 실험연구를 통하여도 입증된 바 있다(Tesser & Campbell, 1980; Tesser & Paulhus, 1983).

중요성 가설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연구들은 그러나 썩 성공적이지 않았다. Hoge와 McCarthy(1984)는 13개 학교의 7~11학년(중1~고2) 학생 1528명을 대상으로 Rosenberg 자존감척도와 Coopersmith 자존감척도, 그리고 9가지 영역에 대해 자신의 능력과 중요성을 평정시켰다. 그들은 (1) 영역별 능력 원점수, (2) 개인의 중요성으로 가중을 준 영역별 능력점수, (3) 학교별 중요성의 평균으로 가중을 준 영역별 능력점수, (4) 참가자 전체의 중요성의 평균으로 가중을 준 영역별 능력점수의 네 가지 점수 각각이 자존감과 갖는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포함된 영역은 ‘똑똑하다’(I am *smart*), ‘잘 생겼다’(I am *good-looking*), ‘운동을 잘 한다’(I am *good at sports*)를 위시한 8가지 지정된 영역과 각 응답자 나름의 독특한 한 영역(What *one thing* do you like to do best of all?)이었다.

영역별 능력 원점수와 자존감(Rosenberg 척도 점수) 간의 상관은  $r=.41$ 이었다. 중요성 지표로 영역별 능력 원점수를 가중한(영역별 능력 원

점수에 중요성 지표를 곱한) 값과 자존감간의 상관인  $r=.41$ 보다 크게 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는 실망적이었다. 13개 소속 학교별 집단중요성 지표(각 영역별 중요성 평정치의 소속 학교별 평균)로 가중한 경우 평균 상관은  $r=.39$ , 참가자 전체의 집단중요성 지표로 가중한 경우  $r=.42$ 이었다. 개인 중요성 지표의 효과는 더 실망적이어서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도 낮은  $r=.34$ 이었다. 연구자들은 각 영역별 중요성 지표가 모두 고루 높아(1부터 6까지의 척도에서 4.0~ 5.6)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요성 측정치를 여러 가지로 변환시켜 보았다. 중요성 평정치를 제곱하거나 3 혹은 4를 뺀 수치로 변환하는 경우 상관이 근소하게 상승하여  $r=.42\sim.44$ 가 되었다.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중요성 평정치의 변환 대신 각 영역별 능력 점수를 자존감 점수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여 산출된 회귀계수로 중요성 지표를 삼은 경우이었다( $r=.45$ ). 그러나 이 계수는 연구자들도 인정하듯이 연구 목적에 “아무런 의의도 지니지 못하는 사후(ad hoc) 변환”(p. 409)의 탐색적 시도일 뿐이다.<sup>4)</sup> 특히 개인중요성 지표는 어떠한 변환을 하여도  $r=.41$ 을 넘는 상관을 내지 못하였다 한다(p. 410). Coopersmith 자존감 척도에 대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Rosenberg 척도 때보다 상관이 낮은 점이 다를 뿐 중요성가설 검증을 위한 상관계수 비교에 있어서는 똑같은 양상이었다.

중요성 지표 가중의 효과가 왜 발견되지 않

4) 회귀계수는 각 영역의 중요도를 사후에 알아보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요성 지표로 회귀계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순환논리가 되므로 중요성가설 검증 연구의 중요성 지표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는지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제시된 영역이 너무 보편적이어서 개인이 독특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영역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들의 기준을 벗어난 개인 나름의 독특한 중요성 부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을 들었다. 이 두 가능성 중에서 연구자들은 9개 영역 중 하나는 각 응답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며 두 번째 가능성이 옳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자유롭게 쓰도록 한 문항의 답으로서 앞에 제시된 8가지 영역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을 쓴 경우(예컨대, '운동을 잘 한다'가 제시된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축구를 잘 한다'라 답함)가 많았다고 하므로 그 한 문항으로서는 각 개인이 개성적으로 택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의 효과를 밝히는 데 미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arsh(1986)는 Hoge와 McCarthy(1984)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같은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교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포함하여 참가자의 연령층을 넓혔으며 각기 다른 영역에 중요성을 부여하리라 여겨지는 이질적 집단을 참가자군에 망라하였다. 즉 참가자는 신체적 능력을 중요시하리라 여겨지는 외향성 훈련 프로그램 참가 집단, 정신적 능력이 중요시되리라 여겨지는 기독교 여학생회 멤버 등 다섯 집단 사람들이었다. 참가자들은 12 가지 영역이 포함된 SDQ(Self-Description Questionnaire)III에서 각 영역의 자신의 능력을 평정하고, 각 영역이 자신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였다. Hoge-McCarthy 연구 결과가 그 연구에서의 영역별 능력 지표가 영역당 한 문항으로 측정되어 그 지표의 신뢰도가 낮은 데 기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각 영역별 문항이 10개 정도인 SDQ와

함께 각 영역별 능력에 대해 한 문항으로 답하는 설문지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Hoge-McCarthy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두 가지 지표를 포함하였다. 즉 (1) 영역별 능력을 전체집단의 점수에 대해 표준화시킴으로써 영역별 능력이 평균이상이면 양수, 영역별 능력이 평균이하면 음수가 되게 한 z점수 영역별 능력지표, (2) 각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지표로서 12영역의 중요성의 합으로 각 중요성 평정치를 나눈 값, 즉 상대적 개인중요성 지표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Marsh(1986)의 연구에서도 역시 중요성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역별 능력을 다문항으로 측정한 SDQ 자료에서 영역별 능력 원점수와 자존감과의 상관은  $r=.67$ 이었다. (Marsh는 자존감을 Rosenberg 척도가 아니라 자신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으므로 Rosenberg 척도를 사용한 연구와 상관계수 수치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개인중요성 지표로 가중을 한 경우의 상관은  $r=.51$ 로 낮아져 Hoge와 McCarthy(1984)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있었으며, 상대적 개인중요성(각 개인의 영역별 중요성 평정치를 그 합으로 나눈 것), 집단중요성(각 소속집단 및 전체 참가자에 대한), 상대적 집단중요성(각 소속집단 및 전체 참가자에 대한)의 다섯 가지 중요성지표를 각기 가중한 다섯 가지 영역별 점수와 자존감 점수와의 상관은  $r=.68\sim.70$ 으로 중요성가중의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영역별 능력의 지표를 원점수가 아닌 z점수로 한 경우에도 역시 중요성가중의 효과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가장 많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과의 상관은  $r=.69$ , 그리고 중요성 가중을 한 여섯 경우의 상관은  $r=.69\sim.71$ 이었다. 한 문항으로 영역별 능력을 측정한 자료의 분석에서

도 모든 상관계수가 .10 정도 낮을 뿐 결과의 양상은 마찬가지이었다. Marsh(1993)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5가지 교과목 영역에 대하여, 그리고 대학생에게 성격특성을 영역으로, 같은 목적의 두 연구를 수행했는데 결과는 이전 연구와 같았다.

개인중요성의 가중이 자존감과 상관을 현저히 낮추는 현상이 Hoge와 McCarthy (1984) 연구에 이어 Marsh(1986)의 결과에서 다시 드러났다. Hoge-McCarthy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지표들, 즉 영역별 능력을 z점수로 변환하거나, 개인중요성 지표로서 상대적 개인중요성 지표를 사용할 때만 그 낮아짐을 피할 수 있었다. 요컨대, 이 두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중요성 평정의 유용성에 대한 지지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Marsh, 1986, p. 1232).

그렇다면 William James를 비롯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중요성 가설이 틀린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가? 중요성 가설은 그 “뿌리치기 어려운 직관적 매력”(too much intuitive appeal: Marsh, 1986, p. 1233) 때문에 각각하기에는 미련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성가설의 입증을 위한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은 중요성 지표의 변별력이다. 영역의 내용을 미리 제시하는 경우 제시될 영역들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arsh 연구에서의 중요성지표 역시 변별력이 높지 않았다. Marsh 연구에서도 Hoge-McCarthy 연구에서처럼 중요도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Marsh는 이 문제를 중요성 영역(종교적, 예술적, 운동적)을 달리하리라고 여겨지는 이질적 집단들을 조사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상대적 개인중요성 지표를 도입하여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과는 예상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Marsh는 한 문항이 아닌 여

러 문항으로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안을 후속 연구과제로 제안하나, 그보다는 (Hoge-McCarthy 연구에서 아홉 가지 중 한 가지로 포함시켰던) 영역 자체를 각 개인들이 선정하는 방법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변별력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각 개인이 실감하는 독특한 중요성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을 향상,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열등한 영역의 중요성을 낮추고 자신의 우수한 영역의 중요성을 높이는 심리적 작용은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개인이 일반 사람들이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어떤 영역(예컨대, 냄새를 잘 맡음)에 탁월하여 그 영역의 중요성을 높이고, 반면 일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영역(예컨대, 외모)에 열등하여 그 영역의 중요성을 낮추려 한다면, 그 개인의 그러한 심리적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개인이 아주 개성적이어서 타인들의 이목을 철저히 무시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그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견지하는 영역별 중요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중요성이 아닌 집단중요성의 효과가 자존감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단, 집단중요성의 지표로서 개인중요성 점수의 평균인 ‘객관적’ 집단중요성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각 영역에 부여하리라고 각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집단중요성 지표를 택한다면 중요성 가설이 검증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보다 사적(私的)인 영역의 개인중요성의 효과, 혹은 보편적 영역의 (객관적 및 주관적) 집단중요성의 효과는 아직 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 생각된다.

### 자기수용 가설

자존감을 자기수용(self-acceptance)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Rogers(1950, 1951, 1959; Rogers & Dymond, 1954)는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에는 세 가지의 주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 가지 측면이란 자신에 대한 태도의 구체적 내용(인지적 차원), 어떤 기준과 비교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평가차원), 그 판단에 결부된 감정(정서적 차원)이다. 자기수용은 이 중에서 정서적 차원으로서 Rogers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수용이라고 주장하였다. McCandless(1963)에 의하면, 자기수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이 전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행복하고,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결국 자기수용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자존감은 개인의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 간의 불일치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불일치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rger, 1955; Rogers, 1950; Silber & Tippett, 1965). 즉, 자신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영역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핵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단점에 대해 자기수용을 잘 하는 사람은 단점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로 인한 부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단점에 대해 자기수용이 안 된 사람은 단점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가 있을 때마다 부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경험은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단점에 대해 자기수용을 잘 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성숙된 성격(matured personality)의 소유자의 특징 중에 자신

의 단점을 스스로 농담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金聖泰, 1976)는 것은 자존감에 대한 “단점의 자기수용 가설”의 타당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영역별 능력, 중요성, 자기수용을 고려한 이상의 연구와 추론에 기초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요구된다. (1) 개인중요성을 각 개인이 독특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영역으로 넓히는 방법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중요성’ 가설을 검증한다. (2) 집단중요성으로 가중을 준 영역별 능력이 자존감을 더 잘 예언한다는 ‘집단중요성’ 가설을 검증한다. (3)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역별 능력, 중요성, 자기수용이라는 세 가지의 변인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존감에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자존감 관련 영역을 개인이 자유롭게 쓰게 해서 Marsh(1986, 1993)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경우, 개인중요성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검증하려 한다. 연구 1에서는 각 개인이 영역을 직접 쓰도록 하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영역이 다르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평정의 평균인 집단중요성에 대한 결과를 검증해 볼 수 없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적 영역을 설정, 이전 연구들처럼 영역을 미리 제시하고 그 영역들에 대한 응답 자료를 통하여 ‘개인중요성’ 가설, ‘집단중요성’ 가설,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가설을 검증해 볼 것이다. 연구 3에서는 ‘주관적 집단중요성’을 추가시켜서 ‘중요성,’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의 주장을 다시 검증하려 한다. ‘주관적 집단중요성’이란 각 개인이 각 영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

기리라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연구 1: 영역별 능력, 개인중요성 및 자기수용과 자존감간의 관계

연구 1에서는 ‘개인중요성 가설’과 ‘자기수용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자유롭게 쓰도록 함으로써, 이전 연구(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의 문제점, 즉 보편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영역들이 취급된 점을 개선하였다. 이 자료를 Marsh(1986, 1993)의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개인중요성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 1에서는 영역이 각 개인마다 다르므로, ‘집단중요성 가설’의 타당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끝으로,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방 법

### 참가자

부산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255명(남학생 128명, 여학생 127명)이 10명 정도씩 한 조를 이루어 조사에 참가하였다. 12명(남학생 5명, 여학생 7명)이 설문지 중 일부 응답을 누락하여 24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 절차 및 설문지

먼저 조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 후 Rosenberg(1965)척도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배제

현(1984)의 연구와 이영애(1989)의 연구에서 사용한 Rosenberg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번역문장을 선택하였고, 두 연구의 것 모두 부적절한 한 문항은 새로 번역하였다.<sup>5)</sup> Rosenberg 척도는 원래 4점 척도였으나, 4점 척도를 사용한 예비조사에서 자존감이 높고 낮은 사람 간에 변별이 잘 되지 않아서,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7)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 영역별 능력, 중요성, 자기수용, 및 자기불일치에 대한 설문지

이어서 장점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고 그 후에 단점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장점에 대한 설문지와 단점에 대한 설문지는 단어만 조금 상이할 뿐 그 형식은 같았다. 각 설문지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왼쪽에는 단점(장점에 대한 설문지의 경우 장점)을 적을 수 있는 빈 줄이 15개 있었고,

5) 10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 나는 나 자신을 보다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한다(즉, 나는 평소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낮은 편이다.) ‘나는 틀림없이 쓸모 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따금 나는 내가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Rosenberg의 원 척도에서 마지막 문항은 ‘At times I think I am no good at all’이었는데, 이전 두 연구에서는 ‘나는 나 자신을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혹은 ‘나는 가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로 번역되어 있었다.



오른쪽에는 6장의 설문지가 위로 철회져 있었다. 앞 설문지에 대한 반응이 그 뒤 설문지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하고 나서, 넘긴 후 다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설문지를 만들었다. 각 설문지의 지시문은 각기 상단에 써어 있었다. 각 설문지는 참가자가 왼쪽에 적은 장점(혹은 단점)에 대하여 영역의 중요성, 영역별 능력, 자기수용(자기수용에 대한 문항 세 가지), 불일치를 묻는 설문지의 순서로 묶여져 있었다. 중요성은 각 장점(혹은 단점)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9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1, 아주 중요하면 9)에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영역별 능력에 대한 설문지는 각 영역에 있어서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각기 6점 척도[보통이면 0, 아주 부족하면(뛰어나면) 5]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기수용에 대한 설문지는 세 장에 걸쳐, 각 단점(장점)에 대한 (1) 기분, 즉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주 답답하면 0, 아주 기분 나쁘면(좋으면) 5], (2) 행/불행, 즉 “자신의 삶의 불행(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 0, 아주 크게 기여하면 5), (3) 자부심/열등감, 즉 각 단점(장점)에 대하여 “얼마나 심한 열등감(자부심과 긍지)을 느끼는지” [전혀 열등감(자부심과 긍지)을 느끼지 않으면 0, 아주 심한 열등감(자부심과 긍지)을 느끼면 5]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기불일치에 대한 설문지는 각 영역에서의 “당신의 현재 능력이 당신이 원하는 정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9점 척도(전혀 일치하지 않으면 1, 아주 일치하면 9)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설문지 응답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연구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받았다.

## 결 과

### 측정치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에서 부적으로 기술된 진술문에 대한 점수는 평정치 1이 7이 되도록 치환하여 열 문항의 평정치의 평균을 자존감 점수로 하였다. 단점에 대한 영역별 능력 및 자기수용 점수는 0~5를 -5~0의 점수로 치환하였다. 장점과 단점<sup>6)</sup> 영역 모두에서 자신을 평정한 점수의 평균이 ‘영역별 능력’의 지표가 된다. 영역별 능력에 개인중요성으로 기준을 주는 방식은 두 가지이었다. 각 영역별 능력 점수와 개인이 그 영역에 대해 평정한 중요성 점수를 곱한 값의 평균이 ‘개인중요성으로 가중을 준 영역별 능력점수’가 된다(이 후에는 ‘개인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이라 칭함). 각 영역의 중요성 평정치를 중요성 평정치들의 총합으로 나눈 값과 그 영역에 대한 능력 점수를 곱한 값의 평균이 ‘상대적 개인중요성으로 가중을 준 영역별 능력점수’가 된다.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을 묻는 세 가지의 설문지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가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점수’가 된다(이 후에는 ‘단점 자기수용’이라 칭함). 이밖에, ‘장점에 대한 자기수용 점수’(이 후에는 ‘장점 자기수용’이라 칭함),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과 장점에 대한 자기수용 점수의 평균’(이 후에는 ‘전체 자기수용’이라 칭함)도 계산을 해서, 자기수용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6) 참가자들이 기재한 장점의 수는 평균 9.9개(표준편차 3.46), 단점의 수는 평균 9.2개(표준편차 3.72)이었다.

상관분석 결과

표 1은 영역별 능력 및 자기수용과 자존감과의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Pearson 적률 상관은  $r=.4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상관은 같은 Rosenberg 척도를 사용하였던 Hoge와 McCarthy(1984)의  $r=.41$ 에 비하면 약간 높고, Marsh(1993)의  $r=.51$ 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다. 이전 연구(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 1993)에서처럼 이 상관을 모든 다른 상관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개인중요성 가설

개인중요성 가중 영역별능력과 자존감과의 상관( $r=.48$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과의 상관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상대적 개인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과 자

표 1. 영역별 능력 및 자기수용과 자존감간의 상관

	원점수 (중요성 가중 안 함)	개인중요성 가중	상대적 개인중요성 가중
<b>영역별 능력</b>	.463**	.484**	.313**
<b>자기수용</b>			
<u>장점수용</u>			
장점에 대한 기분	.307**	.367**	.034
장점에 대한 행복	.364**	.388**	.025
장점에 대한 자부심	.384**	.394**	.052
장점에 대한 기분, 행복, 자부심	.403**	.415**	.039
<u>단점수용</u>			
단점에 대한 기분	.240**	.201**	.004
단점에 대한 불행	.300**	.250**	-.043
단점에 대한 열등감	.371**	.337**	.105
단점에 대한 기분, 불행, 열등감	.443**	.279**	.068
<u>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u>			
기분	.487**	.489**	.371**
행복과 불행	.522**	.517**	.400**
자부심과 열등감	.540**	.540**	.400**
기분, 행복과 불행, 자신감과 열등감	<b>.549**</b>	.534**	.443**
<b>자기개념 일치</b>	.434**	.406**	.354**

주. 진한 이탤릭체 상관계수는 ‘영역별 능력’과의 상관계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존감과의 상관( $r=.31$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낮았다.

#### 자기수용 가설

표 1의 첫 칸은 모든 지표의 원점수와 자존감 점수와의 상관을, 그리고 둘째 칸과 셋째 칸은 자기 각 지표를 개인중요성(둘째 칸) 혹은 상대적 개인중요성(셋째 칸) 지표 값을 곱하여 가중한 값들이 자존감 점수와 갖는 상관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기수용 가설 검증과 직결되는 상관은 첫째 칸의 자기수용지표들의(자존감과의) 상관이며 둘째, 셋째 칸의 것들은 참고자료로 삼으면 될 것 같다. 단점 자기수용과 자존감의 상관( $r=.44$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약간 낮았다. 그러나, 전체 자기수용과 자존감의 상관( $r=.55$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4.58, p<.0001$ , 일방검증).

#### 자기불일치 가설

자기불일치와 자존감의 상관( $r=.43$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낮았다.

‘개인중요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 1의 결과는 이전 연구들(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 1993)과는 다른 것이므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전의 두 연구에서는 일관성있게 개인중요성 가중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 간의 상관이 현저하게 낮아졌었다 [Hoge와 McCarthy(1984)의 연구에서는  $r=.41$ 에서  $r=.34$ 로, Marsh(1986)에서는  $r=.67$ 에서  $r=.51$ 로, 그리고 Marsh(1993)의 두 연구에서는 자기  $r=.57$ 에서  $r=.49$ 와  $r=.51$ 에서  $r=.46$ 으로]. 그러나 우리의 연구 1의 결과에서는 유의수준에는 달하지 못하였지만,  $r=.46$ 에서  $r=.48$ 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연구 1에서 영역들을 응답자 자

신에게 직접 쓰게 하는 방법을 택한 데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즉 개인중요성의 고려가 자존감 형성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전 연구의 결과는 방법상의 문제로 초래된 것이고, 개인중요성 요인이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인 기능을 하리라는 James 등의 견해는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Marsh(1986)는 상대적 개인중요성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중요성의 가중으로 상관이 낮아지는 현상을 피할 수 있었는데 연구 1의 결과에서는 상대적 개인중요성 지표의 기능이 정반대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단점 자기수용’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 1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체 자기수용’의 효과이었다. 즉, 단점 자기수용 뿐만 아니라 장점 자기수용까지도 함께 고려한 ‘전체 자기수용’은 영역별 능력보다 자존감을 더 잘 예언할 수 있었다.

#### 회귀분석 결과

표 2는 영역별 능력, 불일치, 자기수용 지표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자존감에 대한 동시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자기수용을 ‘전체 자기수용’으로 한 세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장점 자기수용’과 ‘단점 자기수용’으로 나눈 네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기분,’ ‘행복/불행,’ ‘자부심/열등감’으로 나눈 다섯 독립변인 회귀분석, 그리고 자기수용의 6개 측정치를 모두 독립변인에 포함시킨 여덟 독립변인 회귀분석을 각기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수록하였다. 또한 그 회귀분석들을 각 지표의 원점수로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표 2의 첫 칸)와 함께

표 2. 자존감에 대한 영역별 능력, 불일치, 중요성, 자기수용 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변인	중요성 가중 안 함(원점수)		개인중요성 가중	
	$\beta$	$R^2$	$\beta$	$R^2$
영역별 능력	.008		-.015	
자기개념 일치	.075	.307	.216**	.318
전체 자기수용	.508**		.448**	
영역별 능력	.035		.142	
자기개념 일치	.153	.378	.277**	.326
장점수용	.336**		.168*	
단점수용	.373**		.272**	
영역별 능력	.015		-.007	
자기개념 일치	.064	.317	.200*	.328
기분	-.003		-.046	
행복/불행	.225		.198	
자부심/열등감	.317*		.316*	
영역별 능력	.135		.142	
자기개념 일치	.168*	.367	.272*	.334
장점 기분	.125*		.014	
단점기분	.060		-.061	
행복	.071		.101	
불행	.179		.138	
자부심	.134		.043	
열등감	.125*		.214*	

\* $p < .05$ . \*\* $p < .01$

각 원점수에 개인중요성을 가중한 지표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 2의 둘째 칸)도 함께 제시하였다.

세 독립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자존감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전체 자기수용( $\beta = .51$ )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네 독립변인의 회귀분석에서는 자존감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beta = .37$ )과 장점에 대한 자기수용( $\beta = .34$ )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다섯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자신감/열등감( $\beta = .32$ )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 패턴은 개인중요성으로 가중을 준 점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 중요한 영역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앞에 인용한 James(1890)의 주장에 의하면, 자존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중요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자신의 능력

평가이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중요성 평정이 높은 영역만을 선택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중요한 영역을 선정하였다. 한 가지 방법은 각 개인의 중요성 평정치가 평균이상인 영역만을 골라서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장점과 단점 영역에서 자기중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을 하나씩 선택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중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 여러 개가 있으면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개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평균 이상인) 영역 자료만의 분석에서는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과의 상관이  $r=.44$ 로서 전 영역 자료의 상관( $r=.46$ )보다 다소 낮았다. 각 개인이 가장 중요성을 높게 두는 장·단점 한 영역씩을 자료로 한 분석에서의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간의 상관은 상당히 낮은  $r=.36$ 이었다. 중요성이 높은 영역만이 자존감을 결정한다는 James의 주장에 대한 지지증거는 얻어지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서도 개인중요성 가중의 효과와 ‘전체 자기수용’의 효과가 드러났다. 즉 개인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은 중요성 평균이상 영역 자료에서는  $r=.46$ , 장·단점 한 영역씩의 자료에서는  $r=.38$ 로 각기 이들 자료에서의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간의 상관보다 높았다. 전체 자기수용 지표와 자존감간의 상관은 중요성 평균이상 영역 자료에서는  $r=.48$ , 장·단점 한 영역씩의 자료에서는  $r=.38$ 이었다.

## 논 의

연구 1에서는 각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쓰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사적(私的)인 영역들에 대한 영역별 능력, 중요성, 자기수용, 자기불일치를 조사하였다. 개인의 사적(私的)인 영역 선택을 연구방법으로 취함으로써, 개인중요성 가설을 완전히 지지하는 증거를 얻는 데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전 Hoge와 McCarthy(1984)나 Marsh(1986) 연구에서의 “개인중요성의 역효과” 현상과 상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해진 영역을 제시하는 방법은 개인중요성 가설을 검증하는 데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 나름의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영역은 아주 좁은 영역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당구를 아주 잘 쳐 자존감이 높은 경우, 그는 “운동능력”이라는 제시된 영역에 답할 때 선뜻 자신이 그 영역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답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야구, 축구, 달리기 등 일반적인 운동 영역에서 별로 우수하지 못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전체 자기수용’ 효과의 발견은 연구 1의 예기치 않던 소득이었다. “단점 자기수용”의 효과를 부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후속 연구를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집단중요성을 다룰 수 없었다.

## 연구 2: 영역별 능력, 개인중요성, 집단중요성, 및 자기수용과 자존감간의 관계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자료를 내용 분석하여 대표적 영역을 설정하고, 집단중요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전 연구(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 1993)에서처럼 제시된 영역에 대한 응답 자료를 통하여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집단중요성 가설’을

포함해서 ‘개인중요성 가설’과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1에서의 ‘전체 자기수용’의 결과를 다시 검증하였다.

## 방 법

### 참가자

부산대학교의 심리학 개론 수강생 중 지원자 214명(남학생 105명, 여학생 109명)이 1명~12명이 한 조가 되어 조사에 참가하였다. 5명(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의 자료는 일부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절차

영역별 반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영역이 미리 제시된 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장점과 단점 영역에 대해서 동시에 섞어 응답하게 한 점(연구 1에서는 장점과 단점 영역에 대한 응답을 각기 별도의 설문지에 했었음)을 제외하고 모든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였다. 각 영역은 “- - - 을 잘한다/못한다”라는 문장으로 제시되었는데(표 3참조), 먼저 각 영역에 대하여 “잘한다”와 “못한다” 중 하나를 택하게 하였다. 중요성과 자아개념 일치/불일치 정도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3 문항)은 -5부터 5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설문지에서의 영역들

연구 1의 참가자들이 장점과 단점으로 적은 내용을 두 명의 판단자가 분류하였다. 분류할 범주로서 먼저 Marsh(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12가지 영역<sup>7)</sup>과 Swann과 Pelham(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10가지 영역<sup>8)</sup> 중에서 중복되는 영역을 정리해서 모두 13 가지 영역(학업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지적능력, 이성관계, 동성관계, 가족관계, 사교성, 리더쉽, 예술적 능력, 신체적 능력, 정서적 안정성, 규율, 외모)을 정하고<sup>9)</sup> 연구 1의 자료를 분류하는 중 위 13 가지에 속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빈도가 높은 영역을 새 범주로 추가하였다. 추가된 영역 범주는 취미생활, 친사회적 행동, 성격의 부드러운 측면, 성격의 강인한 측면, 생활습관, 지식(많은)의 6 가지이었다(표 3). 내용분석에서의 판단자 간 일치도는 99%이었다.

- 
- 7) Marsh(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12 가지 영역: 신체적 능력, 외모, 이성관계, 동성관계, 부모와의 관계, 정서적 안정성, 정신적 가치/종교, 정직, 언어능력, 수리능력, 일반적 학업능력, 문제해결 능력.
  - 8) Swann과 Pelham(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10 가지 영역: 지적/학업적 능력, 사회적 기술/사회적 능력, 미술적/음악적 능력, 운동능력이나 기술, 신체적 매력, 리더쉽, 상식, 정서적 안정성, 행운, 규율.
  - 9) 넓은 의미의 지적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Marsh(1986)는 언어능력, 수리능력, 일반적 학업능력, 문제해결 능력의 네 범주, Swann과 Pelham(1989)은 지적/학업능력의 한 범주만 포함시켰는데, 이를 학업능력(수리, 언어 능력 등), 지적 능력(지능, 창의력, 기억력 등), 문제해결능력의 세 범주로 정리하였다. Marsh(1986)의 ‘정신적 가치/종교,’ ‘정직’의 두 범주와 Swann과 Pelham(1989)의 ‘규율’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 준수’의 범주를 포함시켰다. Swann과 Pelham(1989)의 ‘행운’ 범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3. 대표적 영역으로 분류된 내용

영역	분류내용	설문지에 제시한 내용
1. 학업능력	수리능력, 언어 능력, 공부, 어학, 문장력	공부를 잘한다/못한다.
2. 문제해결 능력	상황에 따른 일처리 능력, 일에 대한 계획성, 준비성	일처리(준비성, 계획성)를 잘한다/못한다.
3. 지적능력	지능, 기억력,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머리가 좋다/나쁘다.
4. 지식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	특정 분야에, 혹은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다/적다.
5. 이성관계	이성관계	이성관계가 원만하다/ 원만하지 않다.
6. 동성관계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친구(동성)와의 혹은 선후배와의 관계가 원만하다/원만하지 않다.
7. 가족관계	부모, 형제, 친척관계	가족(부모 혹은 형제)혹은 친척과 사이가 좋다/나쁘다.
8. 사교성	낯선 사람과 잘 사귀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 유머감각, 대인관계폭,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림	사교성이 있다/없다.
9. 리더쉽	리더쉽	리더쉽이 있다/없다.
10. 예술적 능력	음악적 능력, 미술적 능력, 무용	예술(음악, 문학, 미술, 무용 등)에 소질이 있다/없다.
11. 신체적/운동능력	건강함, 체력, 시력, 각종 운동	신체적 능력(힘이 세다든가)이 있다/없다 혹은 특정 운동을 잘한다/못한다.
12. 취미/오락	컴퓨터, 게임, 당구, 바둑, 요리, 독서, 영화	특정 취미나 오락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열등하다.
13. 정서적 안정감/정서통제	기분 변화의 폭, 감정절제, 충동성, 즉흥성, 기분에 따른 행동, 조급함	감정의 통제를 잘한다/못한다.
14. 사회적 규범준수	어른 공경, 질서, 효성, 인사성, 애국심, 책임감, 약속 지키기, 거짓말	사회적 규범(웃어른 공경, 질서, 약속 등)을 지키는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열등하다.
15. 친사회적 행동	타인 배려, 타인을 도와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열등하다.
16. 강인한 성격	목표에 대한 노력, 인내력, 집중력, 추진력	성격의 강인한 측면(의지력, 적극성, 결단력 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열등하다.
17. 부드러운 성격	친절, 겸손, 착함	성격의 부드러운 측면(겸손, 친절 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열등하다.
18. 생활습관	잠, 청소, 정리정돈, 절약, 식습관	좋은 생활습관(근면, 집안일 하기, 절약, 정리정돈 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열등하다.
19. 외모	키, 얼굴, 몸무게, 신체부위, 인상	외모(키, 얼굴, 기타 몸의 어떤 부위나, 전반적인 인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열등하다.

## 결 과

### 측정치

자존감과 자아개념 일치성 지표는 연구 1에서와 동일하였다.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을 연구 1에서는 장·단점에 대하여 각기 0에서 5까지의 6점 척도로 측정하여 자료 분석 때 -5에서 5까지의 11점 척도치로 치환하였으나 연구 2에서는 설문지에서 -5에서 5까지의 11점 척도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값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집단중요성 지표는 이전 연구(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영역에 대한 각 개인의 중요성 평정치를 평균한 값으로 하였다.

### 상관분석 결과

영역별 능력 및 자기수용이 자존감과 갖는 상관관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의 첫 줄에는 영역별 능력의 원점수, 그리고 세 가지 중요성 지표로 가중한 영역별 능력 점수가 각기 자존감과 갖는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요성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쓰일 것이다. 표 4의 첫 칸에 제시된 상관계수는 영역별 능력, 자기수용, 자기개념 일치/불일치 변인의 원점수들과 자존감 점수간의 상관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영역별 능력에 비하여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일치/불일치 변인이 자존감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주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삼아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일치/불일치 원점수에 세 가지 중요성 지표를 가중한 점수와 자존감간의 상관을 두 번째 칸부터 네 번째 칸까지에 함께 제시하였다.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은  $r=.58$ 은 Hoge와 McCarthy(1984)의  $r=.41$ , Marsh (1993)의  $r=.51$ , 연구 1의  $r=.46$ 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상관은 이전 연구(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 1993) 및 연구 1에서처럼 모든 다른 상관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사용되었다.

### 개인중요성 가설 및 집단중요성 가설

개인중요성과 집단중요성으로 가중한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간의 상관은 각기  $r=.58$ 로 영역별 능력 원점수와 자존감간의 상관과 동일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개인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 $r=.43$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다. 이 결과 중 개인중요성과 상대적 개인중요성의 효과는 연구 1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1에 없었던 새로운 결과는 집단중요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전 연구(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자기수용 가설

단점 자기수용과 자존감의 상관( $r=.29$ ) 그리고 장점 자기수용과 자존감의 상관( $r=.34$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낮았다. 전체 자기수용과 자존감의 상관( $r=.62$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1.62, p<.06$ , 일방검증). 전체 자기수용은 중요성으로 가중한 지표에 있어서도 자존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개인중요성 가중 자기수용과 자존감과의 상관( $r=.62$ ) 그리고 집단중요성 가중 자기수용과 자존감과의 상관( $r=.63$ )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보



표 4. 영역별 능력 및 자기수용과 자존감간의 상관

	원점수(중요성 가중 안 함)	개인 중요성 가중	상대적 개인중요성 가중	집단 중요성 가중
<b>영역별 능력</b>	.575**	.584**	.429**	.583**
<b>자기수용</b>				
<u>장점수용</u>				
장점에 대한 기분	.284**	.320**	-.122	.291**
장점에 대한 행복	.310**	.339**	-.088	.326**
장점에 대한 자부심	.307**	.326**	-.080	.306**
장점에 대한 기분, 행복, 자부심	.335**	.356**	-.103	.343**
<u>단점수용</u>				
단점에 대한 기분	.235**	.241**	-.080	.232**
단점에 대한 불행	.212**	.305**	-.104	.262**
단점에 대한 열등감	.313**	.306**	-.137	.300**
단점에 대한 기분, 불행, 열등감	.291**	.317**	-.117	.287**
<u>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의 평균</u>				
기분	.592**	.593**	.407**	.604**
행복과 불행	.555**	.594**	.439**	.596**
자부심과 열등감	.602**	.589**	.471**	.599**
기분, 행복과 불행, 자신감과 열등감	<b>.620**</b>	<b>.617**</b>	.502**	<b>.628**</b>
<b>불일치</b>	.489**	.497**	.307**	.481**

주. 이 테이블에 상관계수는 ‘영역별 능력’과의 상관계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을 의미함.

\* $p < .05$ . \*\* $p < .01$

다 높았다(각기  $t=1.34, p < .08$ ;  $t=9.11, p < .0001$ , 일방검증). 이 결과들 역시 연구 1에서 밝혀진 전체 자기수용의 효과를 재확인해 주는 것들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영역별 능력, 불일치, 자기수용 지표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자존감에 대한 동시적 회귀

분석을 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 1에서처럼 자기수용을 ‘전체 자기수용’으로 한 세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장점 자기수용’과 ‘단점 자기수용’으로 나눈 네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기분,’ ‘행복/불행,’ ‘자부심/열등감’으로 나눈 다섯 독립변인 회귀분석, 그리고 자기수용의 6 개 측정치를 모두 독립변인에 포함시킨 여덟 독립변인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수록하였다. 또한 그 회귀분

표 5. 영역별 능력, 불일치, 및 자기수용의 자존감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원점수 (중요성 가중 안 함)		개인중요성 가중		집단중요성 가중	
	$\beta$	$R^2$	$\beta$	$R^2$	$\beta$	$R^2$
영역별 능력	.071		.168		.092	
불일치	.146	.400	.033	.384	.123	.401
전체 자기수용	.465**		.439**		.463**	
영역별 능력	.396**		.414**		.403**	
불일치	.157	.360	.126	.370	.115	.374
장점수용	.062		.032		.083	
단점수용	.116*		.170*		.174*	
영역별 능력	.068		.189		.098	
불일치	.148		.038		.131	
기분	.129	.400	.121	.389	.130	.407
행복/불행	.181		.268*		.264*	
자부심/열등감	.187		.049		.086	
영역별 능력	.409**		.459**		.456**	
불일치	.180*		.119		.179**	
장점 기분	-.021		-.040		-.039	
단점 기분	-.009	.373	-.059	.386	-.099	.381
행복	.174*		.157		-.127*	
불행	.040		.158		.096	
자부심	.095		-.113		.201	
열등감	.077		.067		.080	

\* $p < .05$ . \*\* $p < .01$

석들을 각 지표의 원점수로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표 5의 첫 칸)와 함께 각 원점수에 개인중요성 및 집단중요성을 가중한 지표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 5의 둘째, 셋째 칸)도 함께 제시하였다.

세 독립변인(원점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자존감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전체 자기수용( $\beta=.47$ )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네 독립변인의 회귀분석과 여덟 독립변

인의 회귀분석에서는 자존감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영역별 능력( $\beta=.40$ ,  $\beta=.41$ )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자기수용과 영역별 능력의 기여도가 높다는 이 결과 역시 연구 1의 결과와 비슷한 것이었다.

#### 개인중요성이 높은 영역의 상관분석결과

연구 1에서와 같이 각 개인의 중요성 평정

이 평균이상인 영역과 개인중요성이 가장 높은 장·단점 각 한 영역씩 골라 그 영역들에 대하여 각 지표와 자존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중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 여러 가지일 경우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영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는 영역 전체자료보다는 상관이 약해지면서 전체 자료의 결과 패턴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연구 2의 결과는 그러한 경향이 희미해진 양상이었다.

개인중요성이 평균이상인 영역의 분석 결과에서는,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이  $r=.57$ 로서 19가지 영역 자료의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  $r=.58$ 과 같았다. 평균이상 영역의 개인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 $r=.58$ ), 집단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 ( $r=.58$ ), 전체 자기수용( $r=.59$ )의 자존감과의 상관이 높았는데 이 상관은 전 영역 자료와 비슷했다. 개인적 중요성이 가장 높은 두 영역에 대한 결과에서는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r=.49$ ), 개인적 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 $r=.51$ ), 전체 자기수용( $r=.52$ )이 자존감과 상관이 높았다.

#### 개인중요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 대한 '단점 자기수용'의 효과 검증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가설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한 방안으로 단점 자기수용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아주 열등하다는 사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중요성이 1부터 9까지의 9점 척도에서 6이상이고, 단점에 대한 영역별 능력

이 -5에서 5까지의 척도에서 -3이하인 영역만을 선택하였다. 이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열등한 영역에서의 자기수용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중요성이 크면서 매우 열등한 영역이 없는 집단, 그러한 영역에서의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세 집단의 자존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점수용 정도에 따른 자존감 지표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2, 206)=20.841, p<.001$ ). 개인중요성이 크면서 아주 열등한 영역이 하나도 없는 사람(평균 53.24)과 그러한 영역에 대한 수용이 잘된 사람(평균 51.49)은 자기수용을 잘하지 못한 사람(평균 43.44)보다 자존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논 의

연구 2에서는 영역이 제시된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집단중요성의 효과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다. 집단중요성 효과 검증의 결과는 이전 두 연구(Hoge & McCarthy, 1984; Marsh, 1986)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중요성 가중으로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이 높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구 1의 개인중요성 효과가 되풀이 밝혀진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중요성의 가중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결과이었으나, 연구 2의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단점의 모든 영역에서의 자기수용과 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단점 자기수용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인에게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열등한 영역에서의 자기수용에 대한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는 '단점 자기수용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면서 열등한 영역이 없는 사람과 그러한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역에 대한 자기수용을 잘한 사람이 자기수용을 잘하지 못한 사람보다 자존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가설을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역별 능력과 중요성만을 고려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영역별 능력과 중요성만 고려한다면,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 아주 열등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낮은 자존감을 보이지 않았다.

장점과 단점 모두에 대한 '전체 자기수용'이 영역별 능력보다 자존감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1의 결과는 연구 2에서도 거듭 밝혀졌다.

### 연구 3: 영역별 능력, 개인적 (혹은 집단적, 주관적 집단) 중요성, 및 자기수용과 자존감간의 관계

연구 1과 연구 2에서 전반적(장·단점을 포함한) 영역의 자기수용과 매우 중요한 영역의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이 자존감 형성에 기여함이 일관성 있게 드러났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 그리고 Hoge와 McCarthy (1984) 및 Marsh(1986)의 연구에서도 영역에 대한 중요성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연구 1과 연구 2, 그리고 Hoge와 McCarthy(1984) 및 Marsh(1986)의 연구에서의 중요성 지표는 각 개

인이 실제로 느끼는 중요성을 반영하는 데 미흡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열등한 영역의 중요성을 낮추려 한다(Rosenberg, 1979; Tesser, 1988). 그렇지만 그러한 자기보호적 노력이 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등한 영역의 중요성을 낮추려 하지만, 주위의 일반 사람들이 모두 그 영역을 중요시하는 경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억지로 그 영역의 중요성을 낮추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각하면서 오히려 열등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연구 1과 연구 2에서의 개인중요성 지표, 그리고 그 개인중요성의 영역별 집단평균인 집단중요성 지표 모두 각 개인의 자존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해서, 연구 3에서는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집단중요성 지표,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그 반응을 집단중요성의 한 지표로 삼기로 하였다. 또한 자기수용의 문항에 각 영역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을 추가하였다.

## 방 법

### 참가자

부산대학교의 심리학 개론 수강생 중 지원자 244명(남학생 136명, 여학생 108명)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244명 중 12명(남학생 10명, 여

학생 2명)의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구 1, 2와 같았다.

### 절차 및 설문지

설문지 내용은 연구 2에서 사용하였던 것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였다.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2에서는 신체적 능력과 운동에 대한 능력을 한 영역으로 제시하였었는데 두 영역 중에서 하나는 장점이고 다른 하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참가자가 있어서, 연구 3에서는 그 두 가지의 능력을 따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영역의 수가 20가지로 되었다. (2) 주관적 집단중요성 지표를 얻기 위하여 20 가지 각 영역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하게 하였다. (3) 각 영역에 대하여 “당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단점에 대한 질문일 경우에 “불만”)을 느끼는지” 답하게 하였다.

그 밖에 두 가지 면에서 연구 2와 달랐다. (4)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는 연구 1과 2에서처럼 7점 척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척도를 9점 척도로 통일하였다. 참가자들이 응답하는데 가급적 덜 혼란스럽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었다. (5) 영역별 설문지의 실시를 연구 1에서처럼 장점과 단점을 별도로 하게 하였다(장점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함). 20 가지 영역에 대한 문항이 있는 설문지(“공부를 잘한다/못한다”의 형태임)를 나누어주고, 각 영역에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게 하였다. 그런 후, 연구 1에서와 같이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자신이 ‘잘한다’에 표시한 것은 장점 설문지에, ‘못한다’에 표시한 것

은 단점에 대한 설문지에 분류해서 옮겨 적도록 하였다. 장점은 장점끼리, 단점은 단점끼리 비교하면서 응답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이었다.

## 결 과

### 측정치

장점 설문지와 단점 설문지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므로 단점의 영역별 능력 및 자기수용 지표들은 치환하여 분석하였다. 장·단점을 연결한 척도는 -8부터 8까지의 17점 척도가 되었다. 그 밖에 ‘주관적 집단중요성’ 측정치가 추가된 것, 그리고 자기수용 지표에 ‘만족’에 대한 반응점수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앞의 연구 2에서와 동일하였다.

### 상관분석결과

표 6에 영역별 능력 및 자기수용과 자존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른 상관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준 상관으로 사용되는 영역별 능력(원점수)과 자존감간의 상관은  $r=.57$ 이었다. 연구 2에서의  $r=.58$ 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값이었다.

### 중요성 가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관적 집단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 $r=.58$ )이 가장 컸다. 그러나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과의 차이가 유의수준에 달할 만큼은 아니었다. 오히려 집단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 $r=.58$ )이 영역별 능력

표 6. 영역별 능력 및 자기수용과 자존감간의 상관

	원점수 (가중 안 함)	개인 중요성 가중	상대적 개인중요성 가중	집단 중요성 가중	주관적 집단중요성 가중
<b>영역별 능력</b>	.570**	.579**	.343**	<b>.578**</b>	.581**
<b>자기수용</b>					
<u>장점수용</u>					
장점에 대한 만족	.406**	.398**	-.198**	.406**	.379**
장점에 대한 기분	.313**	.363**	-.172**	.319**	.322**
장점에 대한 행복	.288**	.303**	-.290**	.291**	.250**
장점에 대한 자부심	.436**	.431**	-.170**	.436**	.387**
장점에 대한 기분, 행복, 자부심, 만족	.427**	.409**	-.225**	.429**	.370**
<u>단점수용</u>					
단점에 대한 불만족	.207**	.178**	-.250**	.230**	.186**
단점에 대한 기분	.151*	.143*	-.267**	.173**	.127
단점에 대한 불행	.193**	.177**	-.253**	.215**	.169**
단점에 대한 열등감	.211**	.196**	-.234**	.234**	.211**
단점에 대한 기분, 불행, 열등감, 불만족	.231**	.191**	-.268**	.256**	.195**
<u>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의 평균</u>					
만족과 불만족	.646**	.631**	.444**	.653**	.652**
기분	.619**	.606**	.360**	.626**	.619**
행복과 불행	.627**	.602**	.398**	.634**	.623**
자부심과 열등감	.601**	.642**	.489**	.669**	.652**
기분, 행/불행, 자신/열등감, 만족/불만족	<b>.661**</b>	<b>.641**</b>	.499**	<b>.674**</b>	<b>.662**</b>
<b>불일치</b>	.206**	.276**	.153*	.218**	.249**

주. 이텔릭체 상관계수는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과의 상관계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을 의미함.  
\* $p < .05$ . \*\* $p < .01$

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1.93, p < .03$ , 일방검증).

집단중요성 가중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기다리던 결과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차이가 너무 근소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로 간

주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집단중요성 가중 영역별 능력 점수가 원점수와 매우 상관이 높은 것이 크게 기여하여 나타난 결과이었다.) 중요성 가설에 관한 연구 3의 결과는 연구 2의 결과가 재확인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3에서 특별히 기대하였던 주관적 집단 중요성의 효과는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 자기수용 가설

단점 자기수용과 자존감과의 상관( $r=.23$ )은 아주 낮았다. 반면 전체 자기수용과 자존감의 상관( $r=.66$ )은 매우 높아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 $r=.57$ )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53, p<.001$ , 일방검증). 전체 자기수용은 중요성으로 가중한 지표에 있어서도 자존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개인중요성으로 가중을 준 경우( $r=.64$ ), 주관적 집단중요성으로 가중을 준 경우( $r=.66$ ) 그리고 집단중요성으로 가중을 준 경우( $r=.67$ ) 역시 전체 자기수용 지표와 자존감의 상관인, 기준이 되는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의 상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각기  $t=3.16, p<.003$ ;  $t=2.49, p<.01$ ;  $t=4.17, p<.0001$ , 일방검증).

### 회귀분석 결과

표 7은 영역별 능력, 불일치, 자기수용 지표들을 독립변인으로, 자존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동시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원점수의 세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자존감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전체 자기수용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beta=.63$ ). 네 독립변인의 회귀분석과 열 독립변인의 회귀분석에서는 자존감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영역별 능력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beta=.42, \beta=.40$ ). 개인중요성으로 가중을 하거나 집단중요성으로 가중을 하거나 주관적 집단 중요성으로 가중을 하여도 결과는 동일한 패턴이었다.

### 개인중요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중요한 영역을 연구 1, 2에서처럼 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표의 결과 패턴은 표 6의 전체 영역 결과 패턴과 동일하였으며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 중요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 대한 ‘단점 자기수용’의 효과 검증

‘주관적 집단중요성’이 큰 영역이면서 자신이 아주 열등한 영역에서의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에 따른 자존감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sup>10)</sup> 주관적 집단중요성이 9점 척도에서 6이상이고, 영역별 능력 측정치가 -8에서 0의 척도에서 -6이하인 영역만을 선택하였다. 연구 2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열등한 영역이 없는 집단, 그리고 영역에서의 평균 점수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모두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세 집단의 자존감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229) = 11.71, p<.001$ ). 주관적 집단중요성이 크면서 자신이 열등한 영역이 없는 사람(평균 69)과 그러한 영역에서 자기수용이 잘된 사람(평균 66)은 그러한 영역에서 자기수용을 잘하지 못한 사람(평균 60)보다 자존감이 높았다. 이 결과 역시 연구 2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았다.

10) 연구 2에서처럼 “개인중요성” 지표를 사용하였을 때도 결과 양상은 동일하였다.

표 7. 영역별 능력, 불일치, 중요성, 자기수용의 자존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원점수 (중요성 가중 안 함)		개인중요성 가중		집단중요성 가중		주관적 집단중요성 가중	
	$\beta$	$R^2$	$\beta$	$R^2$	$\beta$	$R^2$	$\beta$	$R^2$
영역별 능력	.013		-.008		-.026		-.018	
불일치	.070	.441	.082	.418	.076	.460	.057	.439
전체 자기수용	.634**		.623**		.680**		.660**	
영역별 능력	.424**		.429**		.424**		.469**	
불일치	.126*	.397	.139*	.386	.129*	.408	.115*	.374
장점수용	.213**		.185*		.211**		.112	
단점수용	.184*		.191*		.190**		.176*	
영역별 능력	-.013		-.110		.079		-.076	
불일치	.070	.444	.081	.429	-.097	.470	.073	.450
만족/불만족	.319*		.289**		.238		.355*	
기분	.070		-.032		-.029		.014	
행복/불행	.175		-.006		.096		.066	
자부심/열등감	.130		.485**		.464*		.303*	
영역별 능력	.397**		.419**		.400**		.463**	
불일치	.129*	.415	.142*	.374	.131*	.423	.110	.271
장점 만족	.082		.017		.076		.042	
단점 불만족	.173*		.170		.170*		.195*	
장점 기분	-.056		.004		.033		.068	
단점 기분	-.087		-.102		-.082		-.141	
행복	.085		-.026		.071		-.004	
불행	.084		.044		.065		.035	
자부심	.163		.140		.151		.028	
열등감	.074		.060		.089		.110	

\* $p < .05$ . \*\* $p < .01$

### 논 의

연구 3에서는 ‘중요성 가설’ 검증을 위하여 ‘주관적 집단중요성’을 추가해서 연구를 했지만, 주목할 만한 지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집단중요성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

만 너무 근소한 차이였다.

연구 3의 각종 분석 결과 패턴은 연구 2의 그것과 거의 똑같았다. 특히 개인중요성 효과가 재확인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전의 Hoge와 McCarthy(1984) 및 Marsh (1986) 연구에서의 ‘중요성의 고려가 자존감 예



언어 방해적 요소'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결과에 상반되는 결과가 연구 1은 물론 연구 2와 3에서 거듭 나타남으로써 개인중요성이 “제시된” 영역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도 자존감 예언에,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전체 자기수용 효과의 강력함이 재확인되었으며, 중요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서의 열등함의 수용의 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개인중요성 가설과 자기수용, 특히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가설의 타당성이었다. 개인중요성 가설에 초점을 둔 이전의 Hoge와 McCarthy (1984) 및 Marsh(1986) 연구에서는 개인중요성은 자존감을 예언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도 개인중요성 가설의 “직관적 매력”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Hoge와 McCarthy (1984)는 그들 연구의 결과를 참가자가 청소년이었던 점에, Marsh(1986)는 개인중요성을 다문항이 아닌 한 개의 문항으로 측정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Marsh(1993)는 개인중요성 가설의 지지증거를 얻는 데 거듭 실패하게 되자 “정보를 최적으로 결합시키는 능력에 있어서의 인간의 결함(humans are very poor at optimally combining information)”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세 연구에서는 개인중요성의 고려가 자존감 예언에, 도움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입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영역을 참가자 스스로 정하도

록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존감과 영역별 능력(원점수)의 상관  $r=.46$ 을 개인중요성 고려를 통해  $r=.48$ 로 높일 수 있었다. 연구 2와 3에서는 이전 연구처럼 정해진 영역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개인중요성의 고려가 영역별 능력과 자존감간의 상관을  $r=.575$ 에서  $r=.584$ 로(연구 2), 그리고  $r=.570$ 에서  $r=.579$ 로(연구 3) 변화시켜, Hoge와 McCarthy(1984)에서의  $r=.41$ 에서  $r=.34$ 로, Marsh(1986)에서의  $r=.67$ 에서  $r=.51$ 로, Marsh(1993)의  $r=.57$ 에서  $r=.49$ (연구 1)와  $r=.51$ 에서  $r=.46$ (연구 2)으로의 변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얻었다. 현재의 관련 지식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크게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Hoge와 McCarthy(1984) 연구의 참가자들은 중 1부터 고교 2학년 사이의 연령층이었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중요성의 역할이 약했다고 한다. Marsh(1986) 연구에서도 참가자 930명 중 45%(418명)가 고교생이었으며 Marsh(1993)의 연구 1 참가자 역시 중, 고교생이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의 판단기준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이전 연구들과 본 연구의 개인중요성 관련 결과가 다른 것을 참가자 연령층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만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 1의 결과를 참가자가 대학생이었던 것에 전적으로 귀결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Marsh(1993)의 연구 2 참가자는 대학생이었다. 사실 개인중요성 현상은 (James에서 예를 볼 수 있듯이) 구체적 개인의 사례에서는 쉽게 발견되지만 규준적(normative) 연구를 통하여서는 밝히기 어려울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연구 1에서는 (참가자 연령의

영향과 아울러)보다 덜 규준적인 요소를 방법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중요성의 현상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개인중요성이 작용하게 되는 기제로서 두 가지 경우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개인이 어떤 일에 내재적 흥미를 느끼도록 독특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함으로써 그 일의 타인들은 모르는 가치와 보람을 터득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 개인은 타인에게는 없는 자신의 남다른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계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다른 한 경우는 보다 자기보호적인, 동기적인 “편파”(나쁜 의미의 현실 왜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부조화 때의 태도변화처럼, 동기에 의해 판단이 변화함을 의미함: 안신호, 1996)를 통하여서이다. 자신이 열등한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면 괴롭고 자신이 우수한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만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Rosenberg(1982)의 선택성 가설의 요체이다. 그러나 이 방어적 편파는 모든 동기적 편파가 그렇듯이(Kunda, 1990) 한계가 있다(Rosenberg, 1982; Wells & Marwell, 1976). 적어도 자신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연스러운 계기”와 “동기적 편파”의 기제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촉진적 영향 관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요소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Hoge와 McCarthy(1984)가 제안하는 사회분위기(ideal type of social setting)를 고려해 보자. 자신 나름의 독특한 판단규정이 허용되는 사회분위기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분위기인가

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각되는 사회분위기는 독특성이 덜 허용되는 사회분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을 연장하자면, 일본인들이 자존감 추구 성향이 낮은(Heine & Lehman, 1996) 이유로서 (정말 일본인들이 그렇다면) ‘독특한 기준 허용에 대한 사회분위기’ 면에서 일본이 특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 같다.

자존감 결정에 자기수용이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었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구체적인 여러 영역에서의 각 개인의 능력 외에 그 각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각 개인이 느끼는 정서가 자존감을 예언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고, 행복과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담담하고, 자신의 단점이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단점에 대해 불만과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자체가 전반적인 자기수용을 측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각주 5에 열거된 Rosenberg의 척도 문항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자신에 대한 태도일진대(Brown & Marshall, 2001; Greenwald & Pratkanis, 1984), 그러한 자존감 측정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장점과 단점에 해당되는 각 영역에 대한 자기수용을 측정한 것이 실은 각 영역에서의 자존감을 측정한 것이 되고 그것을 모은 것이 ‘전체 자기수용’이므로 전체 자기수용이 자존감과 상관이 높다는 것

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영역별 태도(혹은 영역별 자존감)를 측정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수용 또한 자신에 대한 태도이므로 그러한 후속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의 비판을 인정하더라도, 자존감이 단지가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self-view”)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각 영역에서의 자신에 대한 느낌(태도, 혹은 자존감이 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본 연구의 발견은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이른바 “self-view”(각 영역별 능력)를 측정하여 그것을 합산해서 자존감의 지표로 삼으려는 이전 연구들이 자존감의 정확한 측정에 왜 실패하여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각 영역별 능력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각 영역에 있어서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기수용 효과에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은 여러 문항으로 측정되고 능력은 한 문항으로 측정되어 자기수용 지표의 신뢰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자기수용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일 것 같다. 본 논문의 세 연구의 결과에서 자기수용의 한 측정치로서 능력 지표보다 더 자존감과 상관이 높은 것은 없었다(표1, 4, 6 참조). 그러나 태도는 미묘한 여러 감정적 뉘앙스를 동원하여 측정되어야 하므로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고 따라서,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능력을 자기수용 문항수와 같은 서너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는 대안 연구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처음에 (전체 자기수용이 아니라) ‘단점에 대한 자기수용 가설’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단점들 모두에 대한 자기수용의 지표는 자존감 예언에 큰 힘이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치명적일 수 있는 단점, 즉 아주 중요시하는 영역에서 열등한 경우의 자기수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 지지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단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의 합리화를 통해서 (중요성 낮춤도 그 하나일 것임)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다.<sup>11)</sup> 단점 자기수용 가설은 보통의 방어책략으로 해결하기 힘든 극단적인 단점에 보다 잘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본 연구의 결과가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의의 전반적 맥락에서, 자존감을 편견 같이 심리적 방어 가능성이 높은 태도로 상정하고 피조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속에서 자존감을 측정하는 Greenwald 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Banaji, Rudman, Farnham, Nosek, & Mellott, 2002; Greenwald & Farnham, 2000)의 이른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의 능력 자체 혹은, 그 능력에 관한 태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존감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능력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다. 과거의 자신의 업적, 우수한 타인과의 동일시, 사회적

11) 세 연구의 자료를 각기 성별 및 자존감 고저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장, 단점 영역의 중요도 평정치의 집단별 평균을 계산하여 장점 영역과 단점 영역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세 연구의 12 집단 모두 장점의 중요도가 단점의 중요도보다 높았다.

정체감 등이 자존감의 원천이 됨을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손기정 씨는 20대 때의 업적으로써 일생을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았을 것이며(‘운동’에 대한 능력 평정에서 높은 평정치를 주지 못했을 시기에), 자녀의 우수한 성적은 모든 부모들의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현재의 혹은 과거의 소속 집단에서 자존감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높은 포부도, 자신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경우,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추론은 자기개념 일치 가설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자기개념 일치 가설은 실현가능한 이상적 자기는 자존감을 높이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자기는 자존감을 낮출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간의 차이 지표가 본 연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전 연구에서 자존감을 예언하는 힘이 아주 약함은 이 전제가 오류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현 불가능하지만 아주 멋진 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 개인 스스로를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자부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sup>12)</sup>

그 밖에도 자존감의 원천은 자기정의의 방법만큼 다양할 것이다. 능력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측정치(그것이 능력이든 태도이든)에 기

초하여 자존감을 예언하는 데는 능력 이외의 자존감의 다른 원천의 존재만큼 오차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 영역에 기초한 자존감 측정은 자신의 능력이 자존감 원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어린 연령층에서만 예언력이 높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金聖泰 (1976). 成熟人格論.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 배제현 (1984). 자아-아이덴티티와 자존감과 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 (1996). 사회적 판단과 동기: 동기가 인지적 책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77-103.
- 이영애 (1989). 자존감과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rown, J. D., & Marshall, M. A. (2001). Self-esteem and emotion: Some thoughts about feel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575-584.
- Altrochhi, J., Parsons, O. A., & Dickoff, H. (1960). Changes in self-ideal discrepancy in repressors and sensitiz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67-72.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 547-579.
- 12) “꿈”의 가치와 그 실현가능성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할 것 같다. “꿈” 실현의 기초가 되는 어떤 과제에 크게 성공 혹은 실패하여 그 꿈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게 되는지 아니면 단지 “꿈”으로 여기게 되는지, 그 꿈을 접어야 할 때 그 꿈을 자신의 이상적 자기 목록에 남겨 두는가 아니면 그 목록에서 제외시키는가, 남겨진 (혹은 제외된) 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복잡하게 얽혀, 경우에 따라서는 자극 상황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

- Berger, E. M. (1955). Relationships among acceptance of self, acceptance of others, and MMPI sco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 279-283.
- Bernichon, T., Cook, K. E., & Brown, J. D. (2003). Seeking self-evaluative feedback: The interactive role of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view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94-204.
- Butler, J. M., & Haigh, G. V. (1954).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s and ideal self-concepts consequent upon client-centered counseling. In C. R. Rogers & R. F. Dymond (Eds.),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pp. 55-7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Ehrlinger, J., & Dunning, D. (2003). How chronic self-views influence (and potentially mislead) estimates of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5-17.
- Fitts, W. H. (1964). *Tennessee Self Concept Scale: Test booklet*. Nashville, TN: Counselor Recording and Tests, Department of Mental Health.
- Gough, H. G., & Heilbrun, A. B. (1965).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22-1038.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Guerney, B., Jr., & Burton, J. L. (1967). Comparison of typical peer, self, and ideal percepts related to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3*, 253-259.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oge, D. R., & McCarthy, J. D. (1984). Influence of individual and group identity salience in the global self-esteem of you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403-414.
- James, W. (1890/인쇄중).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정양은 역, 심리학의 원리. 서울: 아카넷).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atz, P., & Zigler, E. (1967). Self-images disparity: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86-195.
- Kubinić, C. M. (1970). The relative efficacy of

- various dimensions of the self-concept in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7, 321-336.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Marsh, H. W. (1986). Global self-esteem: Its relation to specific facets of self-concept and their impor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24-1236.
- Marsh, H. W. (1993). Relations between global and specific domain of sel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importance, certainty, and ide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975-992.
- Maslow, A.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McCandless, B. (1963).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Piers, E. V. (1969). *Manual for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The Way I Feel About Myself)*. Nashville, TN: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Department of Mental Health.
- Rogers, C. (1950). The significance of the self-regard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In M. L. Reymert (Ed.), *Feeling and emotion: The Mossebert Symposium* (pp. 374-382). New York: McGraw-Hill.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gers, C.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ume 3, pp. 184-256). New York: McGraw-Hill.
- Rogers, C. R., & Dymond, R. F. (1954). *Psychology and personality chan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2). Psychological selectivity in self-esteem formation. In M. Rosenberg & H. B. Kaplan (Eds.),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pp. 535-546). Arlington Heights, IL: Harlan Davidson.
- Silber, E., & Tippett, J. S. (1965). Self-esteem: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6, 1017-1071.
- Stapel, D. A., & Suls, J. (2004). Method matters: Effects of explicit versus implicit social comparisons on activation, behavior, and self-view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860-875.
- Swann, W. B., & Pelham, B. W.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Tess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 181-227). New York: Academic Press.
- Tesser, A., & Campbell, J. (1980). Self-definition:

- The impac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and similarity of othe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341-347.
- Tesser, A., & Paulhus, D. (1983). The definition of self: Private and public self-evaluation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72-682.
- Watson, D., Suls, J., & Haig, J. (2002). Global self-esteem in relation to structural models of personality and affe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85-197.
- Wells, L. E., & Marwell, G.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 Sage.
- Wylie, R. C. (1974). *The self-concept* (rev. ed., Vol. 1).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1 차원고접수 : 2005. 4. 15.  
수정원고접수 : 2005. 6. 12.  
최종게재결정 : 2005. 6. 13.



## **Determinants of the General Self-Esteem: Influences of Self-View, Importance, and Acceptance of Specific Domains**

**Shin-Ho Ahn**

**Mi-Yo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Many psychologists including William James (1890) contended that only the ability domains to which an individual gives importance will have influences on Global Self-Esteem (GSE). However, Hoge and McCarthy (1984) and Marsh (1986, 1993) showed that weighting by Individual Importance lowered the correlations of Self-View (of one's ability) to one's GSE and that weighting by Group Importance did not increase the correlations. In Study 1, participants were administered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d wrote both their merits and their demerits, and then they rated, on each domain of these merits and demerits, Self-View(SV), Attitudes to their ability (general feeling; contributions to their happiness/unhappiness; pride/shame), and discrepancy between ideal and real self. In Study 2 and Study 3, participants rated the similar scales on the given domains which were determined from the content analysis of the data of Study 1. Results of three studies showed that (1) weighting by Individual Importance does not decrease, if not increase, the correlations between SV and GSE, (2) General Self Acceptance (favorite attitudes to both their merits and their demerits) is the most influential on predicting GSE, (3) individuals who have Acceptance of the most problematic Demerits (domains on which they give very high importance, but have very poor ability) have higher GSE than those who have not Acceptance of those problematic Demerits.

*Key words* : general self-esteem, self-view (ability) of specific domains, importance of the domains, self-acceptance